

韓廷玉氏의 『神卽社會禮』論에 對한 一考(七)

鄭景玉

汎神論에 대한 氏의 批判

그 다음에 氏는 스피노사[스피노자]의 神觀을 反□한다. 그 理由는 첫째로 人間이란 이 큰 宇宙안에 있어서 보잘것 없는 存在物인데, 全宇宙를 人間에 中心하여서 人間生活의 □長體라고 본다는 것이고, 둘째로 神과 宇宙를 同一視하여서 山과 새와 사람과 人間社會를 神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氏가 스피노사를 批判한대 대하여서도 두 가지 큰 疑問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 스피노사가 果然宇宙와 人間을 同一視한 汎神論者인가. 勿論 스피노사의 『模倣』이나 『理解의 發展』에는 유과니사드에서 引用한 句節에 만다. 그러나 스피노사의 神은 決코 우리가 通俗的으로 말하는 汎神論이 아니다. 『스피노사는 萬有의 實體를 說明할만한 物의 最高本疾 卽 實體를 밋었다. 이 『實體』는 永遠하며 無限하며 自動的이며 萬物안에 잇스나 萬物을 超越하여잇나니 우리는 萬物을 배우는 것이 神을배우는 것이다』(로이스現代哲學의 精神 六一頁 以下)라고 한 것이었다.

둘째로 人間 社會 生活에 있어서 宇宙的 心靈이 神이라고 말한 스피노사의 哲學的 神觀은 自然 理法의 絕對性에 依한 氏의 社會 卽 神觀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決코 스피노사의 神觀을 동으로 삼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은 『嚴密한 哲學的 立□』에서 보자면 모든 經驗事實의 宇宙的 價値와 客觀的 實在性을 밋는 스피노사의 主張이 氏의 主張보다 더 健全하고 기쁜 뜻이 잇다고 생각 된다.

더군다나 氏가 오거스친을 빙자하여서 基督教을 反□하고 스피노사를 들어서 힌두敎나 佛敎思想을 反對한것이라면 너무나 非科學的 態度가 아닌가 한다. 宗教를 研究하는 사람은 主觀的 觀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主張을 自己

생각에 드라마추라고 하지 안코 偏見이 업는 精神을 가지고 모든 宗教經驗事實과 宗教思想에 對하여야 할 것이다.

自然神敎에 대한 氏의 批判

氏의 自然神敎에 대한 批判은 무엇보다도 잘 써주었다. 十八世紀 自然神敎는 傳統神學의 『超自然的 啓示』論을 反對하기 위하여서 自然의 運命에 密接한 關係가 잇는 神의 合理的 原理를 主張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自然神論者들은 傳統的 神觀과 自然科學을 調和混同하라고 한 것이 옳다.

氏는 이와 가튼 自然神論을 反對하여서 먼더 『因果律은 그것이 人間的主觀에 依하는 人間生活에 有한(有效한?)한形式』이라고 한다. 오늘날 만흔 哲學者들의 氏와 가티 機械論을 反對하여서는 어떠한 事實이 그다음에 窺다라 오는 事實을 이르킨 다든가 或은 事實과 事實사이에 依在的 絕對法則이 잇다는 見解를 버리고 所依 因果的 關係란것이나 自然法則이란것은 『依在的 平均』이나 『事物關係의 合理的 說明方式』에 不過하다고 한다.

그다음으로 氏는 또 말하였다. 우리는 機械的인 自然現象과 目的的인 人間生活 現象과를 混同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고 自然과 人間을 混同하는 것은 人智가 發達하지못한 原始時代에 잇서 서는 人間中心思想 卽 全宇宙를 人間生活의 依體라고 보는 데에서 發生되었고, 現世代에는 哲學上 認識的 依體 卽 第一原理라든가 本質或은 本體라하는 單一的 根本原理를 捕捉하라는 依體에 出發』하였다.(第一回五段六行 以下)

그러나 氏가 因果論을 人間의 主觀的 經驗의 一形式이라고 본다든가, 自然과 人間生活의 規範이 根本的으로 不同하다고 보는 見解 그것은 氏가 일즉히 말한 物質不滅 勢力保全 等 自然理法의 『絕對性』을 밋는다느니 科學的으로 依定할구업는 것은 想像뿐에 그치는 것이다.(第一回三段四十行 以下)는 말과는 矛盾이 잇는것이 아닐가 한다.

以上에 말한 것과 가티 氏는 傳統的 一神論과 汎神論과 自然神敎를 反對하고 그다음으로는 身의 『三大萬性』인 人格性道德的 能力 세가지 方面으로 原始人이 社會自體를 理想化하는대서 이러한 神의 萬性を 그려낸 것이라고 主張한다.

氏의 人格性에 對한 氏의 主張

그는 『神에게 人格性を 認한것은 古今을 通하여 一致한 事實이다』(第三回 第一段十三行-)라고 한다.

그리고 『人間性を 有한 者는...人間性を 有한 人間이 아니면 아니 된다』(第三回四段七行 以下)고 하여 가지고 神을 現實界에 잇는 實在로 치고 한 거름더 나아가서 그들 人間世界 卽 社會內에서 求하여 볼 것이다』(第三回

四段一行)라고 結論한다. 이 세 가지말은 마치 三段論法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社會는 神 하나님이라는것을 說明한것과 가티 氏는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우에 말한 두 가지 前□가 모다 疑問을 품고 잇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첫재로 神의 人格性은 氏가 말한것과 가티 모든 神敎가 東西古今을 通하여서 認定하는 事實이 아니다. 『嚴密한 哲學的 見地에서 보면 神의 人格性을 認定하지 아니한 宗教가더 만타고 하겠다. 上古宗教의 마나나 힌두敎의 푸라 만이나 헤겔의 『絶對』는 반다시 人格性을 가진것이 아니다.

둘재로 人間性 가진 것은 반다시 人間이라야하는 것이 아니다. 神의 人格性이란 말은 決코 □人的 神觀을 가라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經驗이란 人格의 表現이 잇서야 하느니 만치 사람의 經驗 對像은 나무나 짐생이나 들이나 하나님이나 모도가 人格的 性範□를 머서나지 못한다. 그리고 宇宙 (人間과 有機體的 關係를 가지고 잇는)의 根源이며 宇宙의 意義인 根源인 神은 적어도 人格內容을 含蓄하여야 한다는대 不過한 것이요. 사람이 神이란말은 아니다.

神의 道德性에 對한 氏의 批判

氏는 神의 道德性에 대하여서도 道德性은 社會自體를 떠나서는 無意味하고 社會는 善의 □□者이기때문에 善의 起源이며 善의 □□자라고본 神은 神 社會 그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簡單히 말하자면 宗教信念과 道德的 價値判斷을 同一視하는것이라고 하겠다. 이 學說의 長點과 缺點이 모다 宗教와 道德사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칸트 以後 **루세, 오른셀, 헤어만마티뉴, 해푸딩소리** 그리고 昨年기포드렉추어로 나온 웹氏의 『道德論者의 信仰』(二卷)等 現代宗教哲學의』 重要한 理論이 여기에 잇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氏의 理論에 대하여서 적지 아니한 疑心을 가지고 잇다. 萬一 氏가 主張하는것이 옳다고 한다면 氏가 反對하는 方面만은 分明은 여러 사람의 □同을 엇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여러 發達된 宗教의 神觀이 人間社會의 規範以內에 制限하고 其外에 달은 宗教經驗을 否認한다는 것은 너무 『宗教』란 그것의 內容을 局限하는것이 아닌가 한다. 人間은 個人이거나 社會이거나 서로 奉仕할 것이요. 決코 崇拜할것이 아니다.

둘재로 重要한 問題는 宗教와 道德의 關係에 잇서서 宗教는 어떠한 行動이 道德的이나 아니냐를 決定한다는 것보다 道德的 價値에 宇宙이며, 客觀的인 實在性을 주는대 宗教의 참뜻이 잇는 것이다. □일러의 말을 引用하자면 宗教는 實在에 對한 道德的 依歸이라고 할 것이다. (바일러 宗教의 解釋三一八頁)

簡單히 이 글을 매저 둔다. 社會 그것이 곳 神이란 學說은 요새 所□ 無神論的 人文 主義者들사이에 夜話거리가 되었스나, 哲學的으로 볼 때에 分明히 形而上學的 懷疑主義이며 實際方面으로 考察하여서 社會自體를 尊重히 생각 하는 一種의 事實과 理論에 잇서서 아즉도 더 생각하여 볼 餘地가 잇다고 하갠다. (끝)